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가 11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일부 최고위원들과의 오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1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회동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 일반인의 33배

4급 이상 10명 중 1명...자녀도 4.4%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종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었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군로 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까지 포함해도 2.1%밖에 안 됐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크게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74.8%를 차지했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고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이 높았고 의학기술 수준도 낮아 신체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과 지금의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김종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병역 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jkipark@

민생 행보·복핵 대응...명절 잇은 여야지도부

새누리 '시장 순례'·더민주 근로자 격려
정세균의장·3당 원내대표 미국 방문 동행

여야 지도부에게 이번 추석 명절 연휴는 말 그대로 '그림속의 떡'이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연말부터 본격화할 대선국면 등의 정치일정에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정국까지 겹치면서 한가롭게 명절 기분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 됐다.

이런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계 원로 및 전문가들을 만나 정국구상의 시간도 내야 하고 지역구 현안도 챙기는 등 좀처럼 쉴 틈을 찾지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24시간 민생행보'에 돌입한다. 오전 7시 30분 서울 노랑진수산시장을 시작으로 광장시장,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중구의 쪽방촌과 송파구의 생활쓰레기 처리장까지 돌아보는 일정은 밤 10시가 넘어야 끝날 예정이다. 취임 이후 연일 계속되는 현장행보에 가속페달을 밟아 민심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취지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는 13일에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마장동 축산물시장 '시장 순례'에 나설 예

정이며, 이후 연휴 대부분은 지역구인 전남 순천에서 시간을 보내며 '찾아가는 민생 행보'와 정국 구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대한노인회 방문과 조계사 민주평화포럼 참석에 이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예방할 예정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원로 정치 지도자를 방문해 인사를 하는 차원인 동시에 국민통합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추석을 하루 앞둔 13일에는 서울 용산역에 당 지도부와 함께 나가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도 일터를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의 민생행보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청와대 회동 직후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추석 연휴를 온전히 외국에서 보내게 됐다.

박 위원장은 4선 의원이지만, 임기 중에 공무상 해외출장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추석 연휴를 '남남'하고 정 의장의 방미 일정에 동행한다.

북한의 계속된 무력도발로 동북아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입법부 수장과 여야 3당의 원내사령탑이 나란히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

안철수 "양극단과 단일화 없다"

제주 강연... "중산층 복원에 모든 것 걸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1일 "내년 대선에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갖고 "양극단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또 "국가와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과연 있을지 정말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합리적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



의당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중산층 복원으로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대표가 최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으로 표현한 데 따른 정부·여당과 센터 측 반발과 관련, "아마 저 높은 데서 누가 화를 내니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정의화-손학규 강진 회동

대선 역할론·향후 진로 등 대화... '중간 지대' 교감 주목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최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강진에서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 전 의장 측과 손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정 전 의장은 지난 8일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린 시민예술대학 정치 강좌를 마친 뒤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손 전 대표와 만나 90여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장은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해운물류 대란 등을 언급하며 '국가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에 손 전 대표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의장이 자신의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을 통해 공론화를 시도하는 개헌 문제 및 차기 대선 역할론과 함께 손 전 대표의 정계 복귀와 향후 진로 등도 화제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지난달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시킨 새 지도부를 놓고 이른바 '도로 친박(친박근혜)당' '도로 친문(친문재인)당'이라는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두 사람이 '중간지대'에 대한 교감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전 의장은 손 전 고문에게 "서울로 올라오시면 자주 연락하자"고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더민주 당사 옮겨...내년 2월 입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사를 옮기기로 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여의도 시대'를 연 이후 영등포에서만 8번째 당사다.

안규백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지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새 당사에 입주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와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2월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당사는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장덕빌딩이다. 안 사무총장은 "지금은 당 조직이 4곳(신동해빌딩 당사, 민주정책연구원, 국회 본청, 국회 의원회관)에 분산돼 있어 사무처 당직자들의 업무가 제한받고 있다"며 "당사 매입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가 그동안 지도부가 바뀌거나 선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잦은 당사 이전을 해 왔다.

지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출발한 이후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2004년 3월 영등포 옛 농협 청과물공판장 건물을 당사로 삼았다.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 창당과 함께 영등포 당산동으로 당사를 옮겼고, 2008년 9월에는 여의도 세실빌딩으로 부분 이전한 뒤, 2011년 1월 다시 영등포 당사로 일원화했다.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은 2013년 8월 대산빌딩으로 당사를 이전했고, 작년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통합한 새정치연합은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지금의 신동해빌딩을 주 당사로 삼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